

LUXURY

Magazine for The High Class

Change in Luxury SPECIAL THEME

Switch of Dream
Historic Panorama
My Own Luxury
Endless Change of Identity



SP SWISS
PERFECTION

럭셔리 3
2005

와인 속 여인을 만나다

Women in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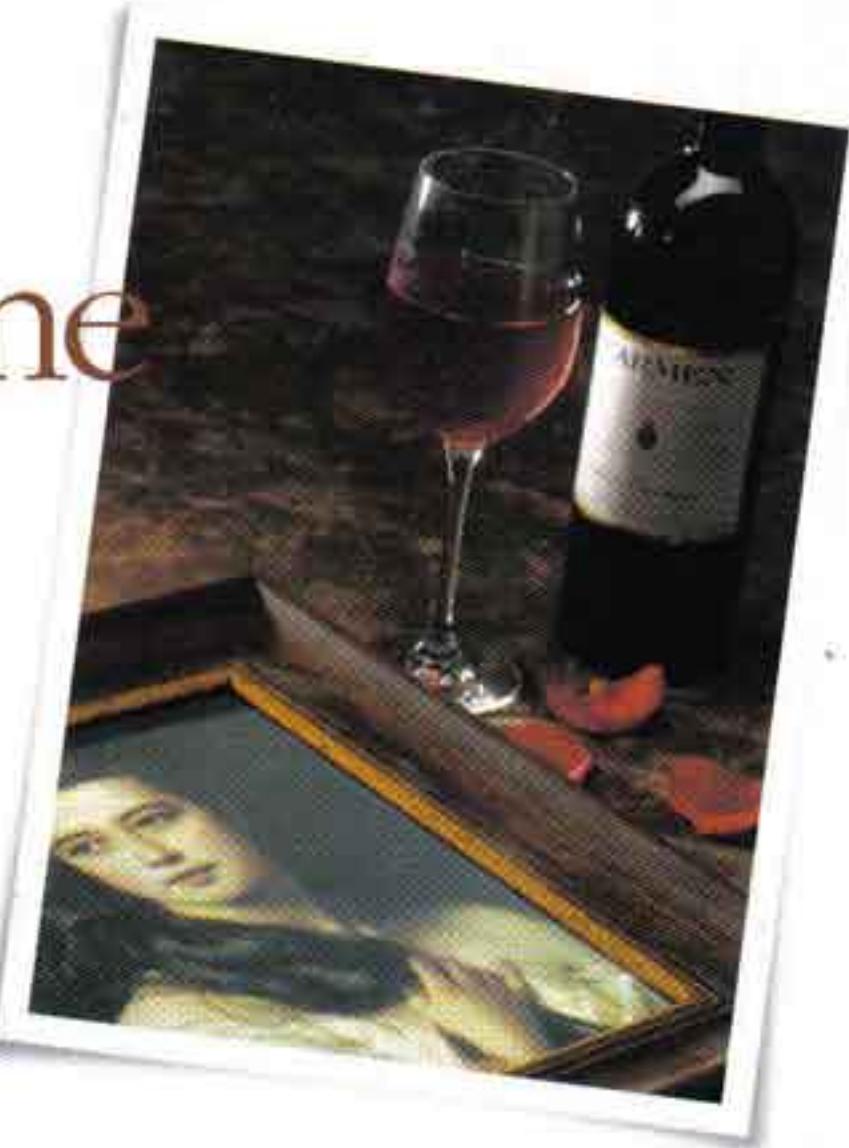
와인과 함께 등장하는 역사 속 여성의 이야기는 와인을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든다. 지금부터 와인 속 여인과의 테이트를 시작해보자.



마리아 카를리나의 은신처 Donnafugata

시칠리아 최고의 와이너리로 평가받는 돈나푸가타(Donnafugata)는 랄로 패밀리에 의해 설립되어 150년간 운영되고 있다. '돈나푸가타'라는 이름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르봉 왕국의 페르디난도 4세의 아내인 마리아 카롤리나(Maria Carolina)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란츠 1세와 마리아 테리자아 여제 사이의 16남매 중 13번째로 태어났으며,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장 절친한 혈육이기도 했다. 그녀는 정치에 무관심한 왕을 제치고 1792년부터 나폴리 왕국의 실권을 장악했고, 1793년 동생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는 프랑스를 증오하게 돼 친프랑스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어 유럽의 강력한 왕국들과 동맹을 맺어 대혁명 후 집권한 나폴레옹 세력을 견제하지만 대세가 기울자 자국 내 혁명을 피해 은신할 곳을 찾았더니게 된다. 그녀는 결국 지금의 돈나푸가타 와이너리가 소유한 포도밭 중 한 곳인 콘테사 안텔리나(Contessa Entellina)로 몸을 피한 후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듯 과학·정한 삶을 산 여인 마리아 카롤리나 왕비에서 유래한 돈나푸가타 와인은 이탈리아어로 '도망간 여인'이라는 뜻을 지

니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그 이름과 레이블 디자인 또한 모두 마리아 카롤리나의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전설의 와인 명가 Baron Philippe Rothschild 보르도 일등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Château Mouton Rothschild)를 생산하는 바롱 필립 드 로칠드사는 세계적인 와인 명가다. 18세기부터 금융재벌로 떠오른 로칠드 가문 중 바롱 나다니엘 드 로칠드(Baron Nathaniel de Rothschild)는 와인 생산에 관심을 갖고 1853년 보르도 메독 지방의 중심에 위치한 포이아 마을에 와이너리를 사 샤토 무통 로칠드라 이름 지었다. 1922년 증손자인 바롱 필립이 이 샤토를 상속받아 66년간 명맥을 지켜왔고, 그가 사망한 후 유산은 그의 딸 바로네스 필립 드 로칠드(Baroness Philippe de Rothschild)에게 상속되었다. 바로네스는 좋은 보르도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한 아버지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과거에 뿌리를 두고 미래를 바라보는 바롱 필립의 비전은 와인 산업의 전통과 신기술을 조화시키는 기틀이 되었고, 현 사주인 바로네스의 의동딸 바롱 필립 남작부인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최초의 여성 사업가 Veuve Clicquot

1772년 설립된 뷔브 클리코 풍사르당(Veuve Clicquot Ponsardin)은 샴페인 업계에서 맹방 있는 이름이다. 오늘날 최고의 권위와 와인 제조 기술을 자랑하게 된 뷔브 클리코 뒤에는 남다른 재능과 용기로 당시 인습에 맞서 싸운 바브 니콜 풍사르당(Barbe Nicole

